

居家雜服攷를 통해 본 조선시대의 복식풍속

명지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조효순

目次	
I. 머리말	2. 禮服
II. 外服[남성복]의 풍속	IV. 幼服의 풍속
1. 平常服	1. 平常服
2. 禮服	2. 禮服
III. 內服[여성복]의 풍속	V. 맺는말
1. 平常服	

I. 머리말

《거가잡복고》는 제1편 外服 제2편 內服 제3편 幼服으로 나뉘어 저술되어있다. 여기서 외복은 남자의 복식, 내복은 여자의 복식, 유복은 미혼남녀의 복식을 의미한다. 그 내용은 대략 당시의 복식풍속을 반성하는 내용과 함께 經典에 의거하여 하나의 설을 내세워가며 복식 개량론 내지 복식 復古論을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책의 원작자는 당대의 실학과 학자였던 潘南 朴珪壽로 그는 1807년에 출생하여 1876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생애를 몇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보면 우선 1848년을 분기점으로 잡아 학문에만 정진하던 시기와 적극적으로 정치현실에 참여한 후반기의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겠고, 다시 다음의 4시기로 나눌 수도 있는데 제1기(출생-1830) 7세에 한시를 짓고, 15세에 벌써 학문적으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孝明世子와의 친분을 통해 燕巖集을 정리하여 실학적 학문에 눈뜨는 한편 왕실과 관계를 맺는 시기이다. 제2기(1831-1848) 과거에 응시하여 官界에 나아갔고 세자의 急逝, 부모의 사별로 상심, 학문에만 전념하던 시기로

당대 일류 학자¹⁾들과 학문적 교류를 통하여 실학적 학문경향이 성숙되어간 시기이다. 제3기(1849-1872)는 正使로 중국에 두번이나 다녀오고 정치가로서 동시에 학문적 이론, 사회현실 국제정세 등을 종합 판단하여 쇄국적 현실속에서 개국론이 맹아하던 시기이다. 제4기(1873-1876서거한해)는 개국론을 주장하여 개화파를 등장케 한 시기로 보다 중요한 시기는 학문적으로 성숙되어간 제2기와 학문이론의 실제전개를 위해 현실참여로 적극성을 보인 제3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가 살다 간 시기는 韓國史 상 중세와 근대가 교체되는 역사적 대 전환기였다. 이같은 시대적 특징과 함께 그의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實用實學派의 중요성, 복식풍속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동생 朴珠壽의 권유 등이 이 책을 낳게 한 원동력이 된 것이다.

이렇게 저작된 《거가잡복고》는 실학파의 학문적 계열에 이어지면서 복식문화에 대한 새로운 반성과 자각을 보여준 저작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 나타난 박규수의 복식관은 실학적인 면도 물론 있지만 다분히 慕華思想에 치우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성을 띤 복식관은

1) 瑄壽가 열거한 그의 친구: 丁若鏞, 徐有渠, 金邁淳, 趙鍾永, 洪爽周, 尹定鉉, 南秉哲, 金永爵, 金尙鉉, 申應朝, 尹宗儀, 申錫愚, 申錫憲, 申錫煥.

일찌기 尤庵 宋時烈을 필두로 몇몇 학자들에 의해 1800년대 중 후기까지 이어져, 士大夫家의 복식문화에 적지않은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박규수의 당시 복식풍속에 대한 반성의 글을 통해 일반적인 時俗의 흐름을 점검함과 동시에, 그것이 모화사상에서 나왔든 실학적인 자각에서 나왔든 일부 사대부가에서는 시속과는 다른 복식이 풍속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II. 外服(남성복)의 풍속

1. 平常服

박규수가 활동하던 1800년대의 남자의 평상복은 서민의 경우 저고리와 바지였으며, 양반은 袍의 일종인 소창의와 두루마기를 겹옷으로 입고 또 笠子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풍속이었다.

이와같은 의복풍속에 대해 《거가잡복고》에는 서민복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으나 양반의 袍에 대해서는, “오늘날 사람은 全幅을 늘어뜨려 상·하의 옷을 구분하지 않으니 이는 결코 중화의 옛법이 아니다.”고 개탄하고 있다. 이어 士人の 평복으로 深衣가 古禮에 어긋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어, 전통과 예를 중히 여기는 일부 사대부가에서는 평상복으로 심의가 착용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비단 《거가잡복고》뿐만 아니라 1800년대의 문헌인 《閩閩叢書》에도 심의의 구성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또, 1975년에 저작된 《靑裝館全書》에도 심의에 대한 기록이 전하고 있음은 袍류가 풍속을 이루는 가운데서도 사대부들에 의해 심의가 꾸준히 착용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 착용된 심의는 중국의 것을 그대로 습용했다기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약간 변형된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심의를 짓는 재료에 있어서 “심의는 본래 麻布로 만들어야 합당하나 여름에는 흑 白苧布를 사용하고, 겨울에는 흑 무명베로 만들어도 불가할 것이 없다”고 했다. 또한 그 형태에 있어서 심의의 소매에는 본래 1자를 이어서

덮도록 되어 있으나 불편하다는 점을 들어 이어서 덮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밖에 심의를 지을 때 중국에서는 周尺을 사용했으나, 박규수는 각자 몸에 맞는 寸尺을 만들어 사용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거가잡복고》에 기록된 촌척만드는 법은 다음과 같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왼쪽손 中指를 굽혀 손바닥 가운데 닿게 하여 손바닥 양쪽에 나타나는 것을 보아 두 무늬의 머리거리가 얼마인가를 비교해 1寸을 삼고, 그 1촌을 10등분하여 1分을 삼으며 1촌을 10번하여 1척을 삼는데 의상의 尺寸은 이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듯 심의의 형태나 제도법에 있어 부분적인 변화는 있었으나 衣와 裳을 따로 재단했다가 합치고, 裳을 12폭으로 하여 또, 領의 가장자리, 續襟한 가장자리, 裳의 아래 가장자리, 양 소매끝 등에 비단으로 선을 두르는 구성법 등은 중국의 제도와 같았다.

그러면 이때 일부 사대부가에서 時俗과 달리 특히 심의 착용을 고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심의가 중국의 고유 복식으로 古禮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도 물론 있었지만 심의의 구성법 내지 형태에 내포된 상징적 의미 때문이기도 했다. 곧 심의를 구성함에 있어서 衣裳連衣로 한 것은 乾이 坤을 統涉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건곤 중심의 宇宙順理를 나타낸 것이었으며, 裳을 12폭으로 재단한 것은 12달에 따른 것이었다.²⁾ 또한 심의의 둥근 소매는 길을 건다가 상대방에게 손을 들어揖해도 옷 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아 예의를 지킬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³⁾ 이밖에 깃을 모나게 한 것은 義가 풀어지는 것을 바로 잡아 곧게 하기 위함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고, 下齊를 평평하게 한 것은 뜻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⁴⁾

심의에 내포된 이러한 상징적 의미 때문에 박규수는 “한 심의로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게 하고 집과 나라 천하의 일이 다 갖추어지게 하는 것이다”고 본 것이다. 결국 당시의 일부 사대부들이 시속

2) 古今圖書集成, p. 1018.

3) 禮記正義, 卷四, 深衣, 第三十九.

4) 바로 앞과 같음.

을 무시한채 심의를 착용했던 것은 심의가 가진 상징적 의미를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공개 다스리려 했던데 있었던 것이다.

한편 그대에 풍속을 이루었던 것도 일부 모화사상에 젖어있던 유학자나 실학자에게 배척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박규수가 숙종대의 유학자였던 宋時烈의 말을 빌어 갖을 다음과 같이 비난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관은 중국의 제도이고 입자는 俗이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속을 중히 여기고 중국의 제도는 가볍게 여기니 비루하지 않는가? 입자를 쓰면 방해되고 부딪혀 부수어지는 등 불편한 일이 많아서 관보다 편하지 못하니 입자보다 더 불편한 것은 없다.

위의 기록에 따르면 일부 사대부가에서는 갖보다는 관을 더 중요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상복으로 심의를 입는 자는 흑 관을 쓰지 않고 흑 福巾을 쓰기도 한다”는 《거가잡복고》의 기록으로 미루어 심의를 평상복으로 입는 사대부들은 관외에 巾의 일종인 복건도 착용했던 것 같다.

2. 예복

1800년대에 있어서 남성의 예복풍속은 서민의 경우 양반들의 평상복이었던 소창의와 두루마기였고, 사대부들은 도포였다. 따라서 사대부들의 평상복이 서민의 외출복 내지 예복이었던 셈인데, 이러한 복식 규범은 英·正祖代를 기점으로 일어난 평등사상의 영향으로 1800년대 중엽부터는 서민들도 도포를 예복으로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듯 계층의 구별없이 도포가 예복으로 착용되었던 시대였으나 예를 존중하는 일부 사대부가에서는 평상복인 심의가 예복으로도 착용되었음을 《거가잡복고》는 알려주고 있다. 곧 이 책의 序에서 박규수는 辛卯年(순조 31년, 1831년)에 그의 동생인 朴珠壽의 관례를 치루기 위하여 집안에서 심의를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심의가 관례복으로 착용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심의는 또 흔히 祭禮服으로 사용되었으니, 朴珠壽(박규수의 동생)은 《거가잡복고》에서 “지금 사대부가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심의를 입고 지내는 자가 있어《五禮儀》와 다른데도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심의를 예복으로 입을 때는 복건대신 玄冠

을 착용하는 등 심의를 평상복으로 입을 때와는 차이가 있었는 바, 박규수는 심의를 예복으로 착용할 때의 그 입는 순서를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다.

심의를 입는자는 먼저 玄冠을 쓰고 끈으로 묶은 다음, 黑履를 신고 끈매며, 이어 심의를 입고 緇帶를 한 뒤 組를 묶는다.

여기서 현관이란 冠으로 덮고 武로 덮어 누르며, 纓으로 묶고 그 나머지는 綉로 삼는 제도로 그때의 朝祭服冠인 委貌제도와 같은 것이다. 또한 흑구는 검은 색의 布나 가죽으로 만든 신이다. 그 모양은 모나거나 뽀족하지 않으며 그 頭上 口邊이 똑바로 발등에 당하는 곳에 청색포백으로 신코가 꾸며져 있고, 뒷축 좌우에는 신끈이 달려있다. 이밖에 치대란 검은 비단띠이며 組란 색실을 섞어 짠 것으로 帶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거가잡복고》에는 또 사대부들의 四禮服으로 玄端이 극구 권장되고 있다. 현단은 周代의 예복으로 裳이 衣에 이어지지 않고 주름이 있으며 양옆이 터져있는 옷이다. 박규수는 여기서 이 옷이 특히 남자의 혼례복으로 착용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당시 남자의 혼례복은 烏紗帽 犀束帶에 紫羅 圓領袍로 대군 왕자의 평상 조회복이었는데, 박규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그 부당성을 피력하면서 현단이 신랑의 혼례복으로 적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 풍속의 사위복이 이미 法服이 아니고 또 사대부의 命服(정복)이 아니니, 예에 합당하지 못하고 冠帶가 燕服인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제 마땅히 옛 것을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거가잡복고》에서는 실제로 이때에 사대부가에서 현단이 착용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책에 현단의 제도법이라든가 착의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당시 일부 사대부가에서 예복으로 착용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Ⅲ. 內服(여성복)의 풍속

1. 平常服

1800년대 여성의 평상복은 일반적으로 치마 저고

리였고, 외출을 할 때면 최하층 천민을 제외한 부녀자들이 장옷이나 쓰개치마를 머리에 두르는 정도였다. 그런데《거가잡복고》에 따르면 萬曆(明神宗의 연호) 이전에는 여성에게도 치마 저고리 위에 덧입는 上服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임진왜란 이후에 미처 禮制에 마음을 쓸 겨를이 없어 부인의 上服이 이때부터 없어지고, 상복 안에 입던 속옷 곧 치마 저고리가 겹옷이 되었다는 것이다.⁵⁾ 그런데 일부 士大夫家에서는 임진왜란 이후에도 평상복으로 상복이 착용되었던 듯《거가잡복고》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우리 집안(박규수의 집안을 말함)은 임진란 이후에도 오히려 上服을 갖추고 있었다. 우리 고조 章簡公(박필균의 시호)때에 이르러 모든 부녀는 반드시 상복으로 뵈게 하되 일을 하거나 식사를 할 때는 釧(팔찌 등 속을 말함)으로 소매를 걷도록 하였으니 이는 대개 일을 보는 데 방해되기 때문이다.

위의 기록은 물론 박규수 한 개인 집안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앞서 남성복에서 살폈듯이 일부 사대부의 복식이 時俗과 무관했음에 비추어 볼 때, 여성복에 있어서도 당시의 유행이나 풍속에 개의치 않고 여성에게 上服을 착용케 한 집안은 꽤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기록에 따르면 또 상복을 입었을 때 실생활에서의 불편을 팔찌의 일종인 釧으로 해결했다고 했는데, 이는 매우 특이한 복식풍속으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실학자의 집안이기에 가능했으리라.

한편 이때 일반 여성의 평상복이었던 저고리의 모양은 短小化경향이 최고조를 이루었던 시기로 보인다. 그것은 박규수가 당시 부녀자의 저고리를 놓고 “대저 이 옷이 매우 좁고 또 짧아서 그 소매는 겨우 팔뚝을 용납할 정도이고 그 齋(옷의 아래 끝단)는 가슴이 지나지 못하게 간신히 묶여 威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박규수보다 약간 앞 시대의 실학자인 李德懋도 《靑壯館全書》에서 여성의 저고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탄하고 있음은 저고리의 단소화 경향이 당시에 크게 유행하고 있었음을 더욱 확실히 해주고 있다.

지금 세상의 부녀들의 옷은 저고리는 너무 짧고 좁으며, 치마는 너무 길고 넓으니 의복이 요사스럽다.⁶⁾

그러나 이 시대의 모든 부녀자가 단소화된 저고리를 입지는 않았던 것 같다. 가령 일본에 체재했던 독일의 박물학자 시볼트(1796-1866)가 19세기 중엽에 그린 ‘조선의 어부일가’에 보면 어부의 부인인 듯한 아낙네가 매우 긴 저고리를 입고 있고 또, 거가잡복고에서 박규수가 권장하고 있는 여성의 저고리 길이가 脾胃에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간 벽지나 어촌의 부녀자들은 유행의 물결이 채 와닿지 않았거나 경제적인 이유등으로 해서 예전의 긴 저고리를 입었고, 예를 존중하는 일부 사대부의 부녀자들은 단소화된 저고리가 예법에 어긋난다고 하여 긴 저고리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마는 10여 폭을 들여 재단한 폭 넓은 치마 속에 속옷을 겹겹이 끼어 입어 둔부를 부풀리는 실루엣이 이때에 이르러 크게 풍속을 이루고 있었다. 여기서 당시 여성들이 치마 속에 입었던 속옷의 종류를 들어보면 다리속곳·속속곳·바지·단속곳 등이다. 양반 부녀들은 이위에 다시 너른 바지·무지기(無足裙)·대습치마 등을 더 끼어 입었으니《거가잡복고》에는 이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우리나라 부녀들은 치마 안에 먼저 짧은 치마 10수 개를 겹겹이 붙이고 적은것도 5-6겹을 밀들리지 않는다. 차례로 점차 길어져 겹겹이로 허리를 두르는데 모두 풀칠을 해 뽀뽀하게 하고 부풀게 하고는 그 다음에 큰 裙籠을 그 위에 더한다. 그래서 허리 이하가 둥글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 마치 항아리를 엮어놓은 것이나 종을 뒤집어 놓은 것과 같다.

그러나 박규수는 둔부를 부풀리는 이러한 치마의 착의 풍습이 일하기에 거추장스럽고 부모나 시부모 앞에서 민첩하게 행동할 수 없으며, 아기를 기를 때나 문을 드나들때에도 불편한데다 외설스럽기까지 하다며 크게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박규수와

5) 속옷이 겹옷으로 된 여성의 복식풍속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韓國服飾風俗史 研究, 一志社, 1988》에서 상세히 밝힌 바 있다.

6)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三十三, 士小節, 第六 婦儀, 一服食條.

같은 생각을 가진 일부 사대부가에서는 단소화된 긴 저고리 대신 길이가 긴 저고리를 고집했 듯이, 치마도 時俗과는 다른 형태였고 착의법도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입었을 것인가? 《거가잡복고》의 기록만으로는 정확한 치마의 형태를 추출해내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치마[裙]의 제도법이 권장되고 있어 대개 이와 비슷한 것이 착용되지 않았나 추정된다.

치마의 표백 및 염색은 적당히 하면 되고 길이는 땅에 끌릴 정도로, 너비는 두르는 1丈반이 되게 하며, 두르는 것은 왼쪽 겨드랑이에서 앞으로 둘러 뒤에 이르고 다시 왼쪽 겨드랑이에서 교차시켜 둘러 오른쪽 겨드랑이에 이르러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에서 교차시켜 맨다. 그 양쪽 겨드랑이 부분에 무수히 주름을 잡고 가슴과 등에 해당되는 곳에는 주름잡지 않으며 허리는 素帛으로 한다.

《거가잡복고》에는 또 평상복에 조금 禮容을 정제하고자 할 때는 옅은 색의 조금 짧은 치마를 치마·저고리 위에 걸치고 저고리 위에서 묶어 이어 치마 위에 色絲의 條帶를 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그의 동생인 주수도 크게 찬성의 뜻을 비치고 있으나 실제로 당시의 부녀자들에게 착용되었는지 여부는 고증하기가 어렵다. 다만 그 색이라든가 착의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다, 그 형태가 그때의 슬란치마[膝欄裙]와 비슷하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일부 사대부의 부녀자들에게 중간 예복으로 착용되었을 가능성은 크다.

《거가잡복고》 內服편에는 여성의 首飾 풍속에 대해서도 많은 언급을 하고 있다. 여기서 그 몇가지를 추려보면 대략 아래와 같다.

- 우리나라 부인의 변발은 머리위에 자리하고...
- ...
- 우리나라 부인들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大髻를 만들어 자기의 머리털 위에 가한다.
- 지금의 부녀자들은 여염의 서민집 婢妾처럼 천한 자라도 모두 풍성한 채를 하여 꾸미는데

그 폐단이 매우 심하다.

위의 기록은 1800년대에도 여전히 상하의 구별없이 本髮로 된 얽은 머리에 가체를 더 얽어 크고 높을 수록 아름답게 여기는 풍속이 크게 유행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영조3년[1727]에서 정조12년[1788] 사이에 거듭 되었던 가발금지령, 쪽머리제의 실시, 쪽두리제의 실시 등이⁷⁾ 1800년대 중엽 이후에는 어느정도 실효를 거둔 듯《거가잡복고》에는 또 다음과 같은 구절도 보인다.

남자머리란 것이 이미 뒷꼭지에 있고 이마 위 빈 곳에는 작은 것을 써서 冠도 아니고 모자도 아닌 것이 마치 말발굽을 빼앗아다 얽어놓은 현상인데 속명이 죽도리이다.

그런데 위의 구절 중 남자머리란 쪽진 머리 위에 덧얽는 긴 다래로 또 다른 형태의 가발이었으니 박규수는 “전일 머리에 이고 있던 것을 지금은 지고 또 목과 어깨사이에다 짚어져 유편이 심함이 그대로이다”라고 그 풍속의 변화를 알려주고 있어 이것은 조선후기에 유행했던 娘子頭⁸⁾의 풍속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박규수는 가발풍속이 가져온 사회적 병폐를 지적함과 동시에, 부녀자들의 수발형태를 상투로 해야 한다며 그 구체적인 만들새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總으로 머리털을 묶어 상투를 만들고 비녀를 가로로 상투 가운데에 꿰어 상투를 고정시킨 다음 纜로 상투를 싸는 것이다.

이와같은 부녀자의 상투머리는 일찌기 1700년대 초반에 우암 송시열 집안의 부녀자들에 의해 실행된 바 있기는 하나⁹⁾ 박규수의 시대인 1800년대에 실행하는 집안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7) 朝鮮王朝實錄, 英祖三年八月乙丑, 英祖 三十二年 一月 一六日, 正祖 十二年 十月 三日條

8) 拙著, 韓國服飾風俗史研究, 一志社, 1987, p. 439.

9) 崔愼은 《尤庵先生語錄》에서, “선생께서는 집에 계실때 중화의 제도를 지켰으니, 부인들로 하여금 모두 상투를 틀게하여 풍속과 다름을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9. 禮服

《거가잡복고》에는 당시 여성의 예복으로 원삼과 당의가 풍속을 이루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먼저 원삼과 관련한 기록을 보기로 하자.

지금 사람들은 모두 圓衫이 부인의 예복이라고 말한다. 그 제도는 녹색으로 하고 긴 것 넓은 소매에 양쪽 膀(방둥이뺨)를 트며 소매끝을 홍·백·황색 각1촌 남짓으로 서로 이어 연하는데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며 예에도 근거가 없다.

박규수는 여기서 처음 착용된 시기를 모른다고 했으나, 기실 원삼은 신라 문무왕 4년에 親唐政策에 따라 그들의 복식제도를 받아들여지면서 비롯된 것이다. 조선조에서는 이 옷이 왕비를 비롯한 궁중 내외 명부들의 대례복이었다. 그러던 것이 후기에 이르러 공주와 옹주의 대례복인 초록 원삼이 일반인들의 혼례복으로 허용된 것이다. 그러나 공주와 옹주의 원삼에 찍혀 있던 織金이 일반인의 혼례복에는 금지되어 있었고, 치수 또한 공주의 것보다 작았다.

다음으로 당의와 관련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 사람들의 唐衣가 부인의 예복이라고 한다. 그 제도는 역시 녹색으로 하여, 좁은 소매에 膀를 트고 길이는 겨우 배를 가릴 만한데 품위가 없는데 예에도 근거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唐衣 또한 唐의 복식에서 유래된 것이다. 조선조에서는 이 옷이 궁중 소례복으로 대례복 속에 입었던 것인데, 후기에 와서 일반인의 혼례복으로 허용되었다. 그런데 일반인의 예복으로 허용된 당의는 민당이라고 하여 궁중용 당의와는 달리 직분을 표시하는 금박 문양이라든가 금실로 鸞鳳을 수놓은 補 등은 일체 금지되어 있었다. 이렇듯 원삼과 당의가 일반인의 예복으로 풍속을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 박규수는 위의 기록에 나타나 있듯이 “禮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다. 그런데 원삼과 당의를 예복으로 부적당하다고 생각한 것은 비단 박규수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예를 존중하는 다른 사대부들도 마찬가지였다. 그 이유는

원삼의 경우 그 옷의 형태가 아래 부분이 벌어져 다리 부근을 잘 휩싸주지 않아 예복으로서 부적당하다고 본 것이고, 당의는 소매가 좁고 그 길이가 짧아 품위가 없어 역시 예복으로서 적당치 못하다고 본 것이다. 대신 이들 가문에서는 宵衣를 예복으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거가잡복고》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근세에 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육복의 제도가 바로 襪袍와 비슷하다고 말하면서 드디어 宵衣를 四揆衫처럼 만드는데……

소의의 본래 형태는 上衣와 下衣가 이어져 심의와 비슷하나, 위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의 소의는 사규삼처럼 많은 부분을 터서 입었던 모양이다. 당시의 부녀자들이 이처럼 소의를 변형시켜 입었던 것은 육복¹⁰⁾의 제도가 규모와 비슷해서 였다기 보다는 여성의 유행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곧 그때에 풍속을 이루었던 예복이 당의와 원삼으로 이 두 옷이 모두 트인 부분이 많았던 바, 예전 복식인 소의에 유행감각을 살짝 가미시켜 입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당시 예복으로서의 소의의 착용범위는 매우 넓었으니, 혼례 및 제례에는 물론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실때와 세시 參謁 술잔을 올려 헌수하는 慶禮의 일에는 모두 이 옷을 예복으로 입었다. 소의를 혼례복으로 입을 때는 특히 분홍색 비단으로 너비 5촌 남직되게 소의의 아랫단에 가로로 선을 둘러 주었는데, 《거가잡복고》에 따르면 이것은 “음기가 옷섬으로 오르는 것을 형상”한 것이라 한다.

IV. 幼服의 풍속

1. 平常服

거가잡복고의 유복편에 미혼남녀의 首飾은 雙紵 纒總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자의 평상복으로 四揆衫을 입거나 혹은 長襦를 입는다. 사규삼은 양옷섬에 해당하는 두결을 터버린다면 평상시에 활동하기는 아주 편해서 남자아이들의 옷으로 매우 적합하다

10) 周代 왕후의 여섯가지 복색: 玄衣, 禕衣, 闕狄, 揄衣, 鞠衣, 緣衣

고 주장하고 있다. 여자아이의 평상복으로는 치마[裙], 저고리[襦]를 입는다. 박규수가 예법이나 古制보다 사규삼이나 치마저고리와 같은 실용성 위주의 옷을 미혼남녀의 평상복으로 앞세웠다는 것은 그 시대 중요한 복식풍속으로 기억된다.

2. 禮服

남자아이의 예복은 緇布衣에 錦緣·錦紳을 매는데 모두 朱錦으로 한다. 여기에 치포의는 베에다 검은 물을 들여 만들고 朱錦으로 緣을 한 옷이다. 이와같이 동자의 머리묶음[總]이나 허리띠[錦紳]를 모두 붉은 비단으로 한 이유는 자라서 문덕이 높기를 바라는 뜻에서였다.¹¹⁾

여자아이의 예복은 소의에 緇簪總을 하는데 소의의 색은 치포의와 같이 흑색일것이고 연은 적색이나 청색을 썼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V. 맺는말

지금까지《거가잡복고》를 중심으로 성인 남·여 및 유아의 복식 풍속에 대해 알아보았다. 《거가잡복고》가 저술된 것이 대략 1865년경이므로 본문에 게재된 복식의 풍속은 대략 이때를 전후한 시기가 되겠다. 그런데《거가잡복고》의 저자인 박규수는 실학파의 학자로 기존 복식문화에 대한 반성과 자각에 초점을 맞추어 이 책을 저술했던 만큼, 일반적인 복식풍속외에 자아의식이 뚜렷한 박규수와 같은 일부 사대부의 복식 풍속을 새롭게 인식할 수가 있었다. 예컨대 상·하의 구별없이 도포에 갓이 평상복내지 예복으로 풍속을 이루고 있던 때에, 박규수와 같은 복식관을 가진 일부 사대부들은 예전의 복식인 심의에 복건을 평상복으로 하고 있었던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심의에 관을 착용하여 예복으로 했던 점도 이 시대의 특이한 풍속으로 받아들여 진다.

한편 여성의 복식에 있어서도 일부 사대부가에서는 당시 크게 풍속을 이루었던 단소화된 저고리에 둔부를 부풀리는 치마의 형태를 벗어나 치마 저고리 위에 上服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엿볼 수 있었

다. 나아가서 여성의 예복에 있어서도 예를 중시하는 사대부가에서는 당시 上向性 복식 심리에 의해 이루었던 원삼이나 당의 대신 宵衣를 예복으로 입었음을 간파할 수 있었다.

그러나 時俗을 무시한 채 심의라든가 소의를 풍속으로 했던 사대부의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또한 박규수가 사대부의 예복으로 권장한 玄端, 부녀자들의 평상복으로 제시한 새로운 형태의 치마저고리 등이 실제로 착용되었는지의 여부를 문제점으로 남긴 채 이 글을 끝맺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도 물론 계속 연구를 하겠지만, 선배·후학들의 고증도 뒤따라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ABSTRACT

Kyu-Soo Park wrote the book "Gur Ga Jap Bok Ko" (Proposition for Household Casuals) around A.D. 1865. He was a widely-learned man and a proponent of Korean self-consciousness like his fellow Pragmatist against then prevailing Chinese influence, which had already penetrated deeply into ordinary life style. According to this fact we can see not only the general dress-customs but the new customs of some high-birth People with evident self-consciousness like him at that time.

For example, they wore "Sim Eui" and "Bok Gun" as the dress of their ordinary life in spite of the general dress custom wearing the "Do Po" (Traditional Korean full-dress attire) and "Gat" (Traditional cylindrical Korean hat) as an ordinary or a ceremonial dress irrespective of rank at that time.

Women wore an overcoat with "Chima" and "Jur. Go Ri" instead of the shortened "Jur. Go Ri" and buttock exaggerating "Chima" largely popular at that time too.

And also wore "So Eui" instead of "won Sam" or "Dang Eui" prevailing for the psychological

11) 拙稿, 古代 미혼남녀의 服裝·裝飾考, 大韓家政學會誌, 1978. pp.25~42.

54 服飾15號

resemblance of higher ranking group. Male youngsters wore "Sa Gyu Sam" as an ordinary life

dress and Girls wore "Chima and Jur Go Ri".